

# 나주교육청 “온라인에서 학교-마을의 만남이 시작되다”

### ‘2021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운영 토론회’ 실시

### ‘로컬이 미래다’ 북 콘서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2021.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운영 토론회’를 실시했다.

‘로컬에듀’, ‘로컬이 미래다’의 저자인 추창훈 교감(전북 완주 소양중)을 초청하여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관내 초중학교 교원 및 나주행복마을학교 소속 활동가 100여명(현장 17명, 온라인 86명)이 참여했다.

나주청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10월 초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개발 TF를 구성하여 예시 사례를 개발하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설명회, 북콘서트를 나주행복마을 학교 운영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마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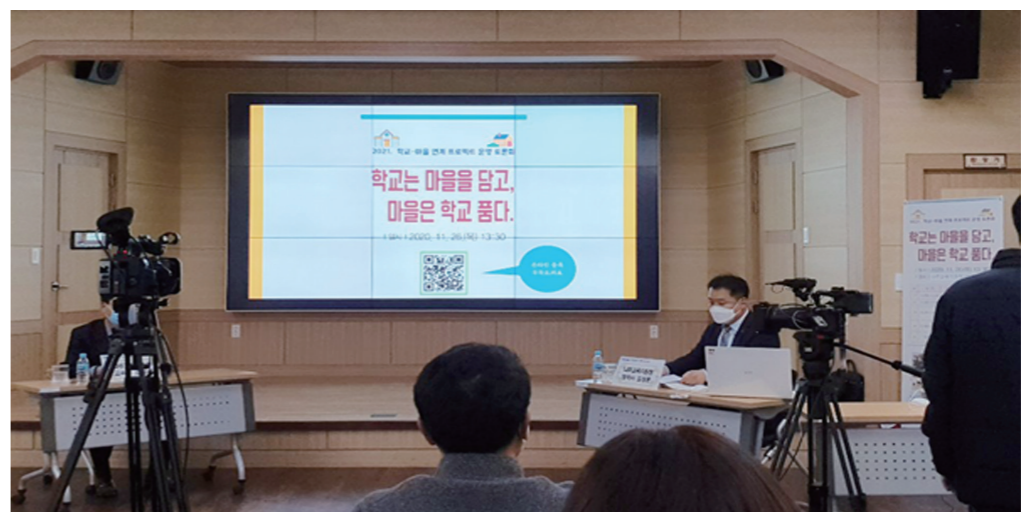
가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학교별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연계 가능한 마을학교를 매칭하여 내년도 프로젝트 운영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추창훈 교감은 “학생의 행복이라는 교육 지향점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 어른들이 합의하고 꾸준히 교육청,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학생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을, 학교,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꿈 꿀 수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참가자는 댓글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어른, 선생님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비록 작은 학교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교육과정을 펼쳐낸다면 재미있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 등 전반적으로 토론회의 방향에 동의하고 응원하는 글을 통하여 운영에 힘을 보태주었다.

나주 관내에는 빛가람마을학교 중심으로 18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마을학교는 천연염색, 전통놀이, 생태체험, 마을 역사체험, 치유농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지역민을 찾아가며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길 나주교육장은 “코로나 속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의 노력



은 멈추면 안된다.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마을,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교육청에서도 학교-마을 연계의 다양한 협력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영상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해남동초, 코로나 극복의 답, 수업에서 찾다

### 미래교육 변화 대비 ‘전남자율혁신학교 실행연수’ 실시

해남동초등학교(교장 김천욱)는 11월, 25일 2회에 걸쳐, 교사 44명을 대상으로 ‘전남자율혁신학교 실행연수’ 중 수업혁신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수업 나눔 분위기를 돌우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래교육 변화 대비 및 혁신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업혁신 방안을 찾고자 기획했다.

지난 1차 연수에는 ‘배움의 철학과 배움의 공동체’를 주제로 혁신학교지원센터 장재완 선생님과 함께했으며,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함께 서로의 성장을 위해 수업을 열어야 한다는 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2차 연수에는 ‘메이커교육 사용 설명서’의 저자인 전상현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미래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한 수업 방안을 실제 실천 사례와 함께 살펴봤다.

2차 연수 강의를 마친 전상현 선생님은 “해남동초의 많은 선생님들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수업혁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강의가 끝난 후 관련 서적을 서로 연구하려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남동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학교’, ‘메이커 교육’ 등 앞으로도 수업혁신을 위한 연수와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광주서부교육청, ‘교원 맞춤형 컨설팅 성장공유 워크숍’ 성료

### 박주정 교육장 “‘출타동시’처럼 교원·학생 역량 강화 위해 노력”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5·27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교원 맞춤형 컨설팅 성장공유 워크숍’을 성료했다.

29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대면 방식의 워크숍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워크숍 방식으로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원 맞춤형 컨설팅’을

수업역량강화 및 교실수업개선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과정과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장·교감되기’ 등 두 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요청한 교원(멘티) 1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컨설팅위원(멘토) 2~3명이 한 팀을 이뤄 1년 동안(4~12월)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워크숍은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4팀 1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지난 27일 워크숍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장·교감되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4팀 13명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팀별 10분 이내의 발표 및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 등으로 진행된 ‘성장공유 워크숍’에서는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장 내용을 다른 팀들과 함께 공유했다.

조인호 기자

## 순천대 순천청팀, 영농 취·창업캠프 경진대회 최우수상

### 전국대학 창업부문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최한 ‘2020년 농업계학교 농업영농 취·창업캠프 경진대회’에서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 소속 창업 동아리 ‘순천청 팀’이 전국대학 창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영농 취·창업 역량을 함

양한 우수 인재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해서 열렸다.

순천대 원예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순천청팀(팀장 김정인)은 천연성분의 세포재생촉진 물질인 PDRN성분을 함유한 ‘식물의상치료제’로 분재, 고목 등 고부가가치 식물의 상처치료제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해 출품했다.

순천청 팀은 심사 결과, 우수한 효능 및 상품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열린 시상식에서 농업계 학교 창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농정원장상(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순천대 배양관 단장(산업기계공학과)은 “농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 수상이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농대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교내·외 현장실습(장·단기), 취창업컨설팅, 농업분야 자격증취득교육, 스마트농업교육, 취·창업동아리 등 교육을 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7개 동아리 팀이 취·창업 활동을 하고, 본 사업단은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